

## 그날이 오기까지

- JHS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도 몇 차례에 걸친 예방접종으로 이제 한풀 꺾였다 여겨지는 이 때, 방송을 통해 그 땅에 코로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절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무엇이고 그냥 맨몸으로 당하며 겪어내며 사는 그들이지만 이번, 전 세계를 강타 한 생명을 앗아 가는 염병은 다르지 않은가? 아버지가 빠져리도록 아파하는 그 아들딸들에게 코로나는 마치 죽음의 사자와 무엇이 다를까? "아~ 아버지! 이렇게 이대로 보낼 순 없지요!!"

코로나 격리 기간을 지나 오늘부터 다시 새벽예배를 시작하며 특별히 기도시간을 베풀며 나갔는데 오늘은 우는 것만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앞에 생떼를 쓰는 아이와도 같이 가슴을 쥐어짜며 땀을 흘려도 시원치 않을 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온종일 새벽에 아버지가 까맣게 태우다 가신 그 자리가 아파 그 땅 우리의 혈육을 한 순간도 손 놓을 수 없었던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새벽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응어리진 아픔을 눈물로 풀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알고 보면 그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핏줄 형제 자매가 그리고 귀하디 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로 그 땅 그곳에서 눈과 귀가 가리운 채 신음하며 사는 그들인 것입니다! 배고픔, 가난과 아픔, 압박과 절박한 고통 중에도 말할 줄 모르는, 그저 온 몸으로 당해내며 우는 것도 잃어버린 그들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넓혀 그가 아니고 네가 아닌 우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지구 위에서 생명을 끌어 가는 이 코로나 염병 앞에서도 어둔 세력의 담보로 묶여 있는 그들! 뭉뚱뚱여서 알고도 모른 채, 모르면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이니 기도로! 기도로! 우리가 함께 살아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 전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몇 십만 명이 속절없이 고스란히 죽어야만 했던 그 아픈 경험이 다시 오는 일이 행여나 없도록 ... 오호~ 그 땅을 화알짝 열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의료기구들과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또한 선한 생명을 담보로 활개치는 세력들의 정체가 그 백성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 땅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 마음을 성령으로 재무장하며 기도의 허리끈을 바짝 동이며 나갑니다. 우리들을 관통하여 이 지구의 한 귀퉁이 한 x도의 캄캄한 반쪽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이 우주의 통치자!

부활의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과 권능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또 한번의 부활의 반전을 기대하면서 이 휘황찬란한 세상에 동요치 않고 위만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믿음의 용사, 우리 하나님 나라의 큰 싸움꾼이 될 수 있기를 아울러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미국에서 아이들을 잘 섬기다가 4 월중순 한국으로 들어온 저는 장례식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린 남편이 집에서 격리를 마칠 즈음 코로나에 걸리면서 꼬박 3 주 일을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늘 겁내던 코로나를 직접 겪어냈으니 차라리 후련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마음껏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차에 코로나 격리 기간도 해제되었으니 앞으로는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의 아픈 가슴과 눈물을 기도로 담아낼 수 있는 도구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해 저희의 남은 인생을 꼭!!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세상을 향해 빠르게 달려 나가는 그들을 볼 때 세상살이의 덧없음에 대해 하고픈 이야기가 정말 많았으나 우리 또한 겪고 깨달아야만 알게 되었던 일들이라 잔소리 될까 싶어 되도록이면 입다물고 생활을 돕기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를 지치게 하여 참 쉽지 않았습니니다.

손자의 건강이 나아지고 아이들이 부탁한 날짜도 다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니다만 세상 속 한 가운데에 아이들을 놓고 온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연약했던 그들의 신앙을 무너트리는데 아주 좋은 핑계가 되기에 충분 했더군요. 아무튼 저는 세상살이에 빠져 버린 아이들의 기도거리 또한 잔뜩 들고 나온 셈입니다. 이것들도 모두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 들이기에.

스기사로서 움짱달짝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시절을 지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 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기도하고 있는 요즘, 지난 주일 口스님께서 어떤 말씀 말미에 '하나님의 일은 재정이 끊어지고 동역자가 끊어지면 더 이상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어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날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나아갈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저희와 함께 하기를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한마음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밭은 이 땅에 불이고 있으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큰 일꾼들이 되십시오!!

멀지 않아 곧 그 날이 오기까지 전심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저 땅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십시오!! 우리들의 지경을 넓게 넓게 확장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2 세, 3 세들의 앞날도 있기에 이 절박한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해! 이웃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 기도하십시오!!